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이 해적이었고 떠돌고 다닌 엉뚱한 친구가 있었다. 산적은 협상국과 지지 분하지만 해적은 품이 멋지다는 것이다. '캐리 비안의 해적'이란 영화가 나오기 까마득한 이전이지만 종종 만화에 해적이 그럴듯한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다. 실제 목격하지 못한 추상에 대한 동경이었다.

추상의 해적이 벌건 21세기에 진짜로 나타나 동원호 선원 25명을 117일 동안 억류했다. 납치 당시에는 온 나라가 들끓더니 여느 일처럼 차츰 잊혀져갔다. 망망대해에서 아만적인 해적떼들에게 시달렸을 선원들의 외상과 내상이 적절했을까. 무엇보다 우리 정부, 언론, 국민의 기억에서 자신들이 잊혀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소말리아 해적은 이성적 교섭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었지만 정부의 자국민 보호 시스템과 역량, 의지를 다시 생각해 본다. 사안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낙관, 먼 산 불구경하는 듯한 외교 시스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이 터지면 가족과 회사만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이 솟잡짐이 된다.

미국은 자국민 한사람을 위해서 지구 끝까지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신속하게



불자 세상보기

이우상
대전대 국문학과 겸임교수

자국민 보호 능력 몇 점?

행동에 나선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감동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우리 정부의 자국민 보호 의지와 역량은 자못 회의적이다. 외국 여행 중 난처한 일을 겪어 현지 대사관의 적극적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 멀게는 국군 포로 송환 문제, 가깝게는 김선일 씨 사건 등 정부의 처신은 미덥지 않다. 예측 가능한 일은 물론이고 돌발 상황, 불가항력의 천재지변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정부다. 세급 겹어 높은 의지에 앉아 유유

자적하라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한 달 전, 학생 다섯 명과 치안산 아래 외딴 집에 2박3일 일정으로 문학 캠프를 갔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S군도 참여했다. 약, 휴대용 산소호흡기 등 만약에 대비해서 꼼꼼하게 챙기라고 일했다.

이튿날 오후,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고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 119에 긴급 타전했다. 30분 후 황색 제복의 119대원이 구급차를 불고 왔다. 비포장 4킬로미터나 되는

외딴 집에 신속하고 용감하게 출동했다. 병원에 이송된 S군은 건강을 되찾았다. 경황 중 이름조차 알아두지 못했다. 원주소방서 소속 그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외국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한 조치도 119 활동만큼 되었으면 좋겠다. 납치 단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쏟고 동원수산이라는 회사의 등을 떠밀고 정부는 뒷전에 앉아 있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협상이든 무력 진압이든 속전속결로 해결할 수 있는 정에 요원을 길러야 한다. 해적떼보다 지혜, 장비, 전략이 못해서야 되겠는가.

장래 희망이 해적이었던 친구는 소방공무원이 되었다. 지금은 소방 간부가 되어 위급한 현장에 달려가 진두지휘 하고 있다.

황색 제복을 보면 든든하다. 미국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1위는 911대원이 되는 것이다. 멸사봉공, 이타행의 정신이 미국을 유지하는 튼튼한 힘임을 보여주는 징표다.

우리 아직, 소방병원이 없다.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 사망해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는다. 부상을 당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 용맹을 떨치기에 주저되는 뒷방 집이다.

열린마당 수해복구 현장을 다녀와서

봉사단을 꾸려 피해지역 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수재가 나자마자 즉각적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강원도 복구현장에 투입됐던 불자 2인의 소감을 들었다.

정마와 집중호우는 끝났지만 수재민의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사할과 불교계 단체들도 자원

지원금 전하고 종일 구슬땀

7월 23일 이른 아침 5시 30분경. 평상시 성지순례를 가거나 절에 올때의 복장이 아니라 보다는 작업복(저수지는 등산복, 보살들은 뽀뽀)처럼에 운동화를 착용하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금방 250여명으로 불어났다. 대형버스 7대에 삼과 고무장갑, 양동이 등을 나누어 싣고 공양간에서 정성껏 지은 밥과 김치를 아이스박스 안에 담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으로 출발하였다.

출발한지 세시간이 조금 넘게 지나 목적이 다가오자 차량 밖으로 보이는 폐허의 모습이 우리 모두는 망연자실! 조계사 자원봉사단이 도착한 곳은 재해대책본부 역할을 하고 있는 평창군 진부면에 소재하고 있는 진부중학교. 이미 이곳에서는 월정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재해복구 작업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산간 비탈에 애써 일군 밭은 어디가고 돌밭으로 변해 있었다. 빙산의 일각처럼 토사에 묻혀 지붕만 남아 있는 집들, 그나마 기둥이라도 튼튼하게 서공하였기에 이 정도지 아예 집 자체가 휩쓸려 간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봉사단 일행은 조계사 주지스님과 신도회장이 대표로 재해복구 지원금과 구호물품을 월정사 주지스님께 전달하고 진부면 신거리, 마평리, 속사리 일대로 30여명 단위가 1개조로 편성되어 구제적인 복구작업에 들어갔다. 우리는 토사로 엉망이 된 파프리카 하우스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파프리카 한그루라도 살리기 위하여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열중했다.

일주일 내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야 했던 마을 주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달콤한 점심공양을 마친 후 이어진 작업은 오후 6시가 되어서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하루 작업량을 완수했다는 기쁨보다는 한 달여 정도는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야 할 현장을 뒤로 한 채 답답한 심정으로 귀경버스에 몸을 싣었다.

이세용(조계사 총무과장)

고통 나누는 기쁨 새삼 느껴

연일 계속되는 장마로 전국 곳곳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특히 강원지역은 피해가 극심했다. 천재재 복구재단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26명은 7월 19일 산사태로 원통보전이 심하게 훼손된 평창군 진부면 진강사로 급히 떠났다.

이 또한 부처님 가르침인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함께 떠났다. 원주를 지니 한 평창에 가까워질수록 마치 만나라 얘기 같던 수마가 휩쓸고 지나간 현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다리위에 걸쳐있는 커다란 나무, 지붕쪽대기만 남겨진 채 흩어 떨어진 집들, 토사가 뒤덮은 도로, 진강사가 가까워질수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다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하천인지 알 수 없었다. 무간지옥이 따로 없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했다.

진강사에 도착해 경내를 둘러보니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무너져 내린 원통보전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우리에게 슬픈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왜 그리도 많은 나무들이 잘려 나가 곳곳에 쌓여져 있었는지 알았다.

진강사 범당 안에도 나무토막과 흩어 가득차 있어 복구의 손길을 잠시 힘들게 했다. 하지만 불자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늘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산사태로 부처님께서 관심을 겪고 계시니 우리가 힘껏 도와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했다.

정상적인 복구때까지 구역의 작은방에 모셔져 있어야 할 부처님을 보자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치유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수해복구 자원봉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김미숙(천태종 복지재단 팀장)

불자의 눈 는혜위원 기명사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불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많은 불교인들과 불교문화들이 역사와 문화를 빛내는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한 인물과 문화를 보존, 발굴, 계승하는 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일이겠지만, 불교인들은 더욱 그러한 일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야 할 일이다. 더구나 불법을 펴는데 더 이상의 좋은 재료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빛낸 불교인들이나 불교 문화재를 선양하는 일에 그동안 너무나 소홀히 해 온 아쉬움이 있다. 우선은 가시적인 효과가 보장되지 않아서인지 단기적인 포교에만 몰두하여 한번 이룩되면 긴 세월 무한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보배를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굳이 인강사에서 일연 스님 탄신 800주년을

역사 속 '포교에너지' 발굴하자

맞아 각종 행사를 기획하여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은 새로운 비전을 주는 것으로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삼국유사 문화제를 기획하고, 그 기간에 국무총리상과 문화부장관상을 주는 문화상을 제정하여 일연 스님을 기리고, 삼국유사의 가치를 널리 선양하며, 그를 통해 불교를 알리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이번 삼국유사대제전의 성공적 개최는 불교계의 관심과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불교문화와 불교 인물을 통해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 수 있는 크나큰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훌륭한 기획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행사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며, 그를 통해 다시 정부와 지자체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일이다.

종교 자체를 직접적으로 포교하는 것은 이미 뒤진 방식이다.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여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리는 이러한 방식의 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발굴·선양해야 할 훌륭한 불교문화와 인물은 너무나 많다.

이번 일연 스님 탄신 8백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문화와 인물을 소재로 한 방식의 포교가 대폭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성대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법조인의 청정성

나라를 위해 벼슬에 있더라도 탐욕하지 않아야 하고, 승진에만 매달려서도 안될 것이며, 오욕락에 빠지거나 청탁에 개입해서는 더욱 안된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벼슬에 있을지라도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항상 본인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앞에 뒤편이 설 자제가 돼 있어야 한다.

〈불본나한경〉

법조계가 자정(自淨)을 위한 강력한 해결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판사 993명의 등록재산 실사(實査)를 벌여 99명이 부실신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은 법조비리 사건에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치인들과 유착한 일부 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밝혀진 후라 더욱 눈길을 끈다.

재산 실사는 법관의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재조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판사 재입을 심사의 강화와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감찰기구 신설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의 자정노력이다.

대한법률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벌유예 이상을 선고 받은 변호사 9명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변호사의 비리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절차가 정지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류의 사례라는 점에서 비장감까지 엿보인다.

하지만 이런 자정 움직임이 일과성(一過性)에 그쳐서는 안된다. 실사대상 판사의 10%가 공직자윤리법을 우습게 알고 부실신고 혹은 부정신고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잘못이 확인되는데도 자기식구를 보호하기 위한 비공개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면 자정 본래의 의미를 망각하는 것이다.

변협은 비리혐의 변호사를 방치해오다시피 한 만큼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분명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 김주익(혜재부 기자)

아직도 신문광고에만 매달리십니까? 불교도 인터넷 시대! 광고도 인터넷 시대!

http://ad.buddhapia.com 주소창에 "에드부다피아"만 치세요.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에드부다피아!!

인터넷 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등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며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에드부다피아가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에드부다피아가는 주요 검색포털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모회 사인 국내 최고의 불교신문인 현대불교신문사와 불교포털사이트인 부다피아와 부다뉴스와 연계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공략을 함으로써 귀사의 소중한 광고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드립니다.

지금 바로 에드부다피아가로 접속하세요!!

매분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적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사, 행사 등과 관련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드부다피아가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에드부다피아가는 간단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다피아, 부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 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부다뉴스와 함께하면 부다피아가는 이미 불교계에서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에드부다피아가는 이러한 부다피아, 부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다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에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셉트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광고접수문의]

http://ad.buddhapia.com / admaster@buddhapia.com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